

## 보도자료

2021년 11월 2일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소통기획관	담당자	김정명 주무관 윤태경 주무관	연락처	055-211-2314 055-211-2214
------	----------------	-----	--------------------	-----	------------------------------

### 하병필 권한대행 “일상회복, 빈틈없는 방역과 의료대응체계 뒷받침”

- 2일 확대간부회의... “전 부서, 일상회복 추진 도민 체감정책 발굴” 주문
- 제380회 정례회 시작, 도의회와 적극 소통 및 예산 국회 협업 대응
- 연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가축방역, 산불 예방, 공직기강 확립 등 강조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대해 “빈틈 없는 방역과 의료대응체계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2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방역에 소홀함이 생기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 상황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과 예방접종, 지역경제 살리기 등 코로나 상황 대응에 전력을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하 대행은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며 “일상회복 과정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2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정례회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정리추경,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에 있어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자”고 전했다.

하 대행은 서울본부에 운영 중인 예산상황실의 노고를 언급하며 “추가 목표로 하고 있는 8,700억을 확보하기 위해 전 실국이 협업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두 달여 남은 202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 대응, 부울경메가시티를 필두로

한 초광역협력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발표된 점, 청년정책 5개년계획, 스마트제조혁신의 본궤도 진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한 하 대행은 “이런 성과를 도민의 시각에서 잘 설명하고 알려드리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대행은 이밖에도 연말 시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방역, 산불 등 재난사고 예방 및 대선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25일 체계적인 일상회복 준비를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2개 본부와 5개 대책반(총괄지원반, 경제민생반, 사회문화반, 자치안전반, 방역·의료반), 72명의 인원으로 ‘경상남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김정명 주무관(055-211-23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